보도자료

담당	외교비서관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1월 16일(토)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개최

- 교역 및 투자, 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등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16, 토)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올해 10.21. 취임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상호 3대 교역국인 양국이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앞으로도 베트남의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해 호혜적 협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베트남에 건설될 예정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끄엉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이 활발

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며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직 양국 간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끄엉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에 기반하여 국방, 안보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했으며, 퇴역함 양도 사업과 같은 베트남 해양 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하면서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